

8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19.8.30.(금) 오후 4시~5시, 12층 대회의실(회의종류후 회사 방송시설 견학)
참석 위원 : 정윤식 위원장, 박성용, 김경만, 박성복, 백대용, 허찬행, 서창호 위원 등
7인(조영숙불참, 장유리불참, 나지수 위원 서면)
회사 참석 인원 : 심의실장, 시청자센터장 등 2인

1. 다음 회의 일정

- 8월 일정 : 9월 27일(금) 오후 4시, 12층 대회의실

2. 주요 회의 내용

▲ 박성용 위원

- 8.8(목) 22:12분경 “불 잡고 생명도 살린 소방관”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감 보도 내용은 불을 끄고 소방서로 돌아가던 소방관 차가 도로에서 정차(빨간 신호등)되어 있던 중에, 바로 옆 인도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심폐호흡, 심장 박동기 등을 이용하여 생명을 구했으며, 소방차에는 지난해부터 심장 박동기 등 장비를 비치하고 다닌다는 내용이었음. 동 보도자료 며칠 전에는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의 영결식을 보도한 바 있음 동 사건은 인도를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자, 뒤에서 걸어가던 시민(여성)이 곧바로 뛰어가서 바로 심폐호흡을 하였고, 옆에 있던 또 다른 시민이 마침 빨간 신호등으로 정차되어 있던 소방차로 뛰어가서 상황을 이야기 하여, 소방관이 조치한 사건임 그러나 동 보도에서는 소방관이 오기 전에 시민들이 한 내용은 생략하고,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고 가던 중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여 생명도 살린 것처럼 보도함. 다른 방송사에서는 시민들의 활동상을 상세히 소개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시민 등을 찾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며, 이후 그 시민이 학부형이었다는 내용도 보도하였음(시민의식 칭찬), 동 보도내용은 어떠한 목적 하든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보도로 밖에 볼 수 없음,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루어져서는 아니 됨

- 8월 내내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로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한국에서 이의 대응책으로 ‘지소미아(GSOMIA)’ 종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도됨, 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어로, 군사전문가 등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8.7(수) 23:25분경, “공기 청정기 성능 미달” 보도(환경부), 기능성을 주장하는 커피(체중 감량), 화장품(바르면 유방이 커진다) 등의 내용을 보도(식품의약품안전처)하면서, 전자는 화면에 해당 브랜드명, 회사명 등이 나왔으나, 후자는 나오지 않음. 소

비자는 어떠한 상표를 가진 어떠한 제품이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홈페이지 등) 제공이 자막 등으로 필요함

- 8.7(수) 23:21분경 "일본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 방류 계획, 한국 위험"이라는 내용을 보도함. 동 내용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며, 현재 한일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함. 심층보도가 필요한 뉴스 기준이 있는지? 없다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8.28(수) 7:22분경, "추석 앞두고 가짜 한우 단속"이라는 보도를 함.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국산/외국산 구분방법, 차례 상 차리는 방법, 자동차 정비 관련 내용 등)를 묶어서 제공하는 뉴스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김경만 위원

- [뉴스현장] 해외금리 파생상품 대규모 손실사태...'불완전판매' 여부 쟁점(8. 20.) [김대호의 경제읽기] 원금 다 날릴 판인데 대책 없나...DLS 쟁점은?(8. 20.) 해외연계 DLF 손실논란 뉴스는 해당 문제가 불거진 8월 19일 이후 총 9건이 보도되었음. 9건의 보도 중에서 특히 좋았던 건 [뉴스현장]과 [김대호의 경제읽기]를 통해 문제의 핵심과 심각성을 심층적으로 보도해주신 부분. DLF 이슈는 '제2의 KIKO사태'라고 불릴만큼 금융소비 약자에 대한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자 해결의 실마리. KIKO사태 당시 중소기업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논란 속에 상품분석 및 환위험 관리능력 부족으로 손실이 계속해서 커진 바 있음 당시 집계, 732개 중소기업, 총 3조 3,000억원 규모 피해 추정, 키코 공대위(공동대책위원회) : 1천개 이상 기업, 20조원 피해 주장 금감원은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 KIKO 상품판매를 불완전판매로 보고 분조위(금융분쟁조정위원회, 9월중 개최 예상) 통해 은행권이 피해업체에 대해 피해액 일부(20~30%) 배상하는 권고안을 검토중. 중소기업계는 지난 KIKO사태에서 중소기업들이 겪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기에, DLF에 대한 은행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정확히 짚어져 그 때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고대, 해외연계 DLF 손실 논란은 피해자가 중소기업에서 개인으로만 바뀐 것으로, 고도화되어 복잡해진 금융상품이 금융약자에게 가산탕진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는 사건, 앞으로도 연합뉴스TV에서 '시청자가 곧 금융소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은행의 불완전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심층보도 등을 통해 집중 조명하여 더 이상 선의의 금융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해주시길 기대

- [뉴스워치] 세계경제 'R의 공포'...이번엔 다르다?(8. 17.) R의 공포, 미국경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 인상적. 지난 8. 15일에 있었던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R의 공포' 이슈에 대한 각 언론매체의 관심이 컸고, 연합뉴스TV에서는 [뉴스워치]를 통해 해당 이슈를 소개·분석함. 본 보도에서 10여분 간의 심층분석을 통해 'R의 공포'라는 미국발 경제침체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과거와 달리,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는 착탄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최근 국내에서는 장

단기 금리역전 현상, 기준금리 인하 국내적 이슈와 더불어, 한·일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미국과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 대외적 악재가 맞물려, 'R의 공포'라는 단어가 주는 위기감이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내 경제주체의 경제심리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음 하지만 본 보도는 미국의 경기지표 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시청자로 하여금 정확한 경제적 사실을 이해케 하여 경제위기감이 막연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생각,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국내 주력산업의 위기, 한·일 수출규제 문제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기상황이 존재하는 만큼, 위기의식은 분명히 가져가야 함. 앞으로 연합뉴스TV가 이번 보도와 같은 정확하고 종합적인 경제 심층분석을 비롯하여,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 등을 종종 다루어주셔서, 한국경제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에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

▲ 서창호 위원

- 일본 후쿠시마 바닷물 128만톤 국내 해역에 방류되었다는 보도 관련. 오염수 방류에 대한 막연한 피해 우려보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패널을 초청하여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등 심층 분석 보도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음.
- 8/20 조국 딸 장학금 관련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가 지도교수에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언급함. 그 의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보도가 부족한 것 같음. 예컨대, KBS는 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의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있었음.
- 연합뉴스 TV 스페셜 8/5 - 보복에 또 보복! 드러나는 아베 정권의 실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유, 배경을 비롯하여 아베 총리가 가지게 된 정치 철학, 신념의 배경 등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한 것 같고, 주제 선정, 방송 내용 등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살린 것 같음.
- 8.26 AI, 법률자문도 넘본다... 변호사와 첫대결 인간변호사와 AI가 처음 계약서분석 대결을 펼친다. 흥미로운 화두를 던져놓고 누가 이겼을까 29일 대회를 개최한다는데 다른 매체는 관련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개최한다는 것만 보도하고 결과도 알려줘야 궁금증도 해소될 것 같다.

▲ 허찬행 위원

- 8월 폭염과 함께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다룬 리포트가 인상적임. 8월 14일 뉴스메이커(19시) 폭염 대책은 말뿐?...건설노동자 "물도 잘 못 마셔" 라는 리포트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휴식이나 작업중단, 세면 시설, 물마실 수 있는 환경 등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다루고, 건설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현실을 자세하게 보여줌. 하지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보도 건수는 전반적으로 극히 드물었음. 폭염과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하게 되는 현실들을 더 많이 다루었으면 좋겠음

- 부자연스러운 구성의 리포트명품리포트 2019.8.22. 13:02 <기업기상도> “제철 만나 뜬 기업 vs. 정 맞은 모난 기업” 한 주간 기업 기상도에서 한 주간 실적이 좋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전하는 리포트로, 일본 맥주 불매 운동과 함께 우리나라 맥주 업체의 매출이 상승했다는 것과 카카오뱅크 소식이 전해졌음. 흐린 기업 기상도에서 일본 맥주 할인행사를 했다가 소비자들의 반감에 홍역을 치렀고, 크리스탈제이드는 일본 맥주 파는 계열사 어렵다고 직원들에게 한 박스씩 사주라고 임원이 얘기했다가 비난을 받음. 유니클로 파는 패스트리테일링의 사과 역풍, 일본 자동차 3사에 대한 것, YG엔터테인먼트 등을 다룸 하지만 전체 맥락으로 보면 제목에서부터 내용 구성이 '뜬금 없다'는 인상이 듬. 왜냐하면 정 맞은 모난 기업에 일본 자동차3사가 모나서 정 맞은지 의문 시작 멘트 “노노 재팬, 관광에서 술, 차, 옷, 약까지 거부 운동 물결이 거셉니다. 소비자는 안 쓰고 상인은 안 팔고 노동자들은 배송과 안내를 중단했죠. 이런 움직임이 우리 경제 살리는 불씨 되기 기대하며 기업기상도 출발합니다. 정리 멘트 “지록위마란 말이 있죠. 중국 진나라 간신 조고가 황제를 속이고 중신들이 자기 편인지 시험하려고 사슴을 말이라며 역지 부렸다는 말인데요. 세계가 다 아는 수출 규제 이유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부실 탓이라 떠쓰는 일본이 이렇습니다. 맥락상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조치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따라 혜택을 보는 기업들, 타격을 입는 기업들을 다룰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나 YG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관계가 없음. 오히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따라 뜨는 기업, 흐린 기업에 집중해 구성했다면 좋을 것임.

- 역사적 의미를 살린 프로그램, 하지만 내용구성은 보다 탄탄하게 할 필요 8월 29일자, <Y스페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명예...“가족은 희생 감수” “임정요원 후손들, 타국서 이름·국적 감추고 살아”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유수동씨 -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의이자 독립 운동가였던 유진동 선생의 후손-, 가 해방 후에도 조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에 남아 살게 된 이야기와, 조인래씨 - 대한민국 임시헌장 초안을 작성했던 조소앙 선생의 후손 -의 이야기를 다뤘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룬 건 역사적 의미를 담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감춰진 이야기” “증언”처럼,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려웠음. 임정요원 후손들, 타국서 이름이나 국적을 감추고 살아온 이유가 ‘갑작스런 해방으로 조국에 돌아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생계 터전이 없어서’라는 단순화의 문제가 있었음.

▲ 나지수 위원

- 교육부 보도자료 강사법 시행이후 강사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리

포트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수준의 뉴스는 차별성이 없고 누구나 방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함. 강사법 입법시 이와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는지, 공청회 자료&기사 등을 찾으면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강사법 내용으로 입법된 경위. 개선방향이 있는지 이 부분도 공청회 등에서 이미 의견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강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것임

- 아주대 24시간 운항 닥터헬기 출동, 이국종교수의 책을 읽은 기자가 있다면 닥터헬기가 얼마나 힘들게 도입되는 것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됨. 도입제안 이후 몇년만에 도입되는지, 얼마나 힘들게 도입되었는지, 소음등 민원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생명에 대한 존중 및 선진국의 사례 등을 소개하는 등 조금쯤은 깊이있고 고민하는 보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음.

-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대본 그대로 질문&답변 생방송에 출연하여 질의응답 하는데 대본 그대로만 진행되어야 하는지 의문임. 물론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는 순발력있고 날카로운 질문이 어려울 것이고 이와같은 진행을 할 수 있는 앵커가 많지는 않을 것임, 또 지자체와 사전조율한 질문만 하는 사정도 있을 것으로 보임, 그렇지만 그냥 적어주는 대본을 읽는 앵커보다는 질문하는 능력이 있는 앵커를 키워야 다시 보고싶은 뉴스가 될 것임

▲ 백대용 위원

- 단순한 정보전달에서 더 나아가서 심층적인 대담이나 전문가 토론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주로, 정치 외교 안보에 관련된것만 치우치지 말고 소비자와 관련해서는 없어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8.29일 기사인데 큰 기사이다. '악취에 고평이까지... LG건조기 145만대 무상수리' 145만대가 2016년부터 팔렸으니 1세대에 2명이 거주한다고 생각하면 290만명이 관련된 것이다. 이 정도 사안이면 큰 사안이어서 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해서 왜 이 내용이 뭐가 문제이며, LG전자측에서 무상수리 한다는 조치를 했는데 과연 적절한것인가,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8월28일 추석 연휴 항공권, 택배, 상품권 피해주의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매년 반복되는 피해보도인데 피해주의보 발령되었다는 보도 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일이 일어나고 매년 반복되지 않고 예방하기 위해선 당사자는 뭘 해야되는지 논의를 했으면 바람이 있었다. 8월16일 현대차 트럭 마세라티 기블리 등 3만8천대 리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시정이 잘 안되는 분야여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 박성복 위원

- 8월달에는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개인 가정사로서 정신없어서 연합뉴스TV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여름 마무리 잘하시고 9월에는 좀 더 건강한 연합뉴스TV, 위원님들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 정윤식 위원장

- 8월 20일 뉴스메이커 PM6:23 전반부에는 <김문수-김무성 토론회> 논쟁, < 조국 인사청문회>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빅텐트 준비> 등 인물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뒤에는 <지소미아 신중 모드> < 일본 규제품목 수출 증가> 등으로 뉴스메이커가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전개, 후반부에는 짧은 단신을 다수 소개함으로써 뉴스메이커라는 제목과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음, 이 프로그램은 일관성있게 뉴스메이커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임, 진행법상의 문제로 뉴스 앵커 및 기자의 말 속도가 다른 방송보다 빠른 것 같음, 실제 측정 필요. 앞부분의 25분 동안 6개 아이템 : 제한된 시간에 뉴스 아이템이 많은 것 아닌지? 의문, 많은 아이템, 빠른 진행은 뉴스의 주목도(선택과 집중)를 낮출 가능성이 있음, 매 시간 마다 프로그램 내용이 유사함으로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 분류기준을 적용하면 프로그램의 흥미도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함, 예를 들면 (1)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외교/북한 등으로 분류하거나 (2)시청자의 관심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하거나 (3)뉴스메이커에 따라 분류하는 등
- 전문가 뉴스 해설 프로그램 확대, 20일 PM 4:00 박지원 의원이 출연하여<북한 및 한일 관계> 설명, 26일 뉴스 포커스(AM10:50) 2명 전문가 출연, 해설자 공히 상당한 전문성, 차별함,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당분간 <조국 청문회> 정국이 뉴스 어젠다를 지배할 것으로 보임, JTBC는 김종배(뉴스 평론가) 이동관 전 수석이 매일 출연하여 현 정국을 설명하고 정치 Actor들의 동향과 향후 정국을 진단하고 있음, 해설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뉴스의 팩트 전달과 함께 그 이면의 다이내믹스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정치인, 공인 등 호칭 문제, 강경화 외무부장관을 <강경화>라 지칭. 강 외무가 바람직 해 보임, 조국 후보자가 바람직 해 보임, 연예인도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임, 예를들면 양현석은 YG 양현석 대표
- 기자들의 화면 노출 문제, 지상파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뉴스 말미에 출연하여 자기 소개, 연합 TV의 경우 거의 대부분 기자가 출연하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뉴스 신뢰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음, 26일 뉴스 포커스에서 <한지이> 기자가 왼쪽 화면에 1/3 정도 화면에 나오고 오른쪽 화면(2/3)에 뉴스 내용이 나오는 방법은 새로운 포맷으로 보였음, 기자 출연, 불출연 등의 원칙이 필요할 것 같음